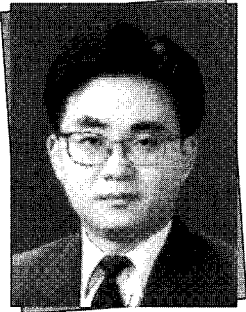


보철물 margin과 치주조직건강



이영규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198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병원 치주과 레지던트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현재 삼성서울병원 치주과 과장

치과수복물에 있어서 치주적인 고려사항은 이미 제작된 수복물과 치주조직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수복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치주조직에 가해지는 자극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야만 한다. 수복물의 preparation과정, impression cord의 삽입 등의 과정에서 치주조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dentogingival complex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dentogingival complex는 손상받기 쉬운 조직이며, 매우 dynamic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복물 마진에 의해 "biologic width"를 침범한다면 치명적인 치주조직의 손상을 야기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보철과정 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biologic width"의 침범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특히 심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현대의 수복물에 있어서는 수복물의 마진을 치은열구내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치주조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치주조직에 대한 이해는 먼저 probing depth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probe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확한 치은열구의 깊이를 알아내기 위한 것이나, 실제 probing depth는 조직학적인 sulcus depth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건강한 치은의 경우에도 probe는 sulcus의 기저부에서 멈추지 않고 junctional epithelium의 일부까지 침투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치주학에서는 pocket depth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probing dept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수복물 마진을 치은열구내에 위치시키는 경우에는 probing depth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치은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probing

depth와 pocket depth의 차이는 수 mm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preparation이전에 치은염증의 제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염증이 소실된 경우라도 probing depth는 sulcus depth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probing depth에서 0.5-1mm 정도를 뺀 수치가 환자의 sulcus depth인 것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심미적인 이유에서 수복물의 마진을 치은열구내에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해당치아마다의 cementoenamel junction(CEJ)의 curvature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전치부 인접면의 CEJ의 curvature는 구치부의 curvature보다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CEJ의 curvature는 심미보철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CEJ의 curvature를 무시한 preparation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biologic width"의 침범을 야기하여 협착치은의 퇴축으로 인한 수복물 마진의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치주조직의 marginal tissue recession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